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성향자의 적대감, 분노경험수준 및 분노표현양식

백 승 혜[†]

현 명 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자기애를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로 하위유형을 구분하여, 공격성(aggresiveness)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에서 차이를 알아보았다. 공격성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은 각각 적대감, 분노경험수준과 분노표현양식으로 측정하였다. 서울 소재 대학생 298명을 대상으로 자기애 성격장애 척도, 내현적 자기애 척도, 공격성 질문지,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를 실시하였다. 자기애 성격장애 척도 질문지와 내현적 자기애 척도 질문지의 점수를 기준으로 내현적 자기애성향집단(n=68), 외현적 자기애성향집단(n=34), 자기애성향이 낮은 집단(n=101)으로 구분하여 집단에 따라 적대감, 분노경험수준과 분노표현양식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변량분석을 사용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내현적 자기애성향자가 외현적 자기애성향자와 자기애성향이 낮은 사람보다 적대감이 높았고,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성향자가 자기애성향이 낮은 사람보다 분노경험수준(특성분노)이 높았다. 분노조절에서는 외현적 자기애성향자와 자기애성향이 낮은 사람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분노표현양식에서는 외현적 자기애성향자는 분노표출을 많이 하고,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는 분노억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적대감이 높고 분노억압을 많이 하는 내현적 자기애성향자가 외현적 자기애성향자보다 여러 면에서 더 부적응적이라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자기애 하위유형에 따라 분노감을 다루는 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주요어 : 자기애, 적대감, 분노, 분노경험수준, 분노표현양식, 공격성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백승혜 / 중앙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Fax : 02-820-5124 / E-mail : seunghye99@empal.com

현대 사회가 점차 산업화되고 문명화되어 감에 따라 자신의 존재에 대한 안정감과 자기 가치감을 추구하려는 심리적 경향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자기에 적 양상은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이다.

오늘날과 같이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빠르게 변해 가는 시대적 상황에서 자기가 애가 적응적으로 발달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 자존감을 잃지 않게 하는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적응적으로 발달한 자기에겐 너무 자기에게만 몰두하고, 타인에게까지 관심이 확장되기 어렵게 되면서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부적응적 자기에겐 적대감과 분노감도 높아 신체적, 심리적 질환에 취약하고 일상생활에서 불편감을 경험 할 가능성도 높다.

수많은 논의와 경험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자기에라는 개념은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자기에적 현상의 범위와 양상, 심리적 기제, 발달과정 등에 대해 이론가마다 약간씩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경험적 연구들에서도 포괄하는 자기에적 현상에 따라 조작적 정의를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에적 성격장애는 DSM-III(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에 처음 등장하면서 “자기에”의 개념 안에서 다양한 의미의 수렴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즉, 양가적인 자존감(ambivalent self-esteem)과 병리적인 웅대성(pathological grandiosity)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자기에의 핵심적 특성이며, 정신장애의 진단 기준에서 자기에성 성격장애의 주요문제로 분노감과 공격행동이 강조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자기에에 대해 어느 정도의 개념적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이후 자기에 측정도구들 간에 상관성이 없거나 미미한 상관만이 존재한다는

연구로부터 자기에의 특성에는 다음 두 범주의 다소 상이한 현상적 특성이 존재한다고 인정되고 있다.; (a) 한 집단은 웅대함으로 가득 찬 환상을 가지지만, 불안하고 소심하며 불안정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포함하고, (b) 다른 집단은 공공연하게 자신의 웅대함을 표현하는 사람을 포함한다(Wink, & Gough, 1990).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 모두 거대 자기 환상과 특권의식, 자만심, 자기방종, 그리고 타인을 무시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웅대하지만 취약한 자기개념이 핵심특성이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양상은 상당히 다르다. 외현적 자기에는 웅대한 자기표상과 오만한 태도를 주된 특징으로 하며,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겉으로는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이와 달리 내현적 자기에는 무의식적인 웅대감을 억압하는 유형으로 오만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기 확신과 주도권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에 대한 타인의 반응에 지나치게 민감하다. 이들은 거절이나 모욕당하는 것이 두려워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이들의 내적 세계의 핵심에는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비밀스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

Kohut(1977)은 강한 이상화 경향을 보이는 자기에 성향자와 웅대하고 노출적인 자기에 성향자를 구분하여 기저의 역동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과장된 자기와 이상화의 두 축을 따라 자기에가 발달하는데, 이때 자기대상의 공감의 필수적이라고 보았으며, 자기대상의 공감 실패가 자기에적 장애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자기에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치감 조절의 기능을 내면화하지 못하고 자기대상에게 과도하게 의지하게 된다. 즉, 타인으로부터의 긍정적 평가와

인정을 갈망하는 상태가 되는데, 이것이 자기애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다만, 외현적 자기애자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타인의 긍정적인 평가를 요구하거나 혹은 긍정적인 평가를 이미 받고 있다고 방어적으로 지각하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자는 부정적인 평가를 예상하고 그러한 조짐이 보이는데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는 방식으로 자기의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표현하는 ‘평가예민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Wink(1991 a, b)는 특히 내현적 자기애자는 내면의 깊은 곳에 자기애적인 역동과 기제를 지니고 있어,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고 억제적이고 무력하다고 하였다. 이들의 과시적이고 웅대한 환상은 수동적이고 억제된 방어적 태도로 인해 숨겨질 수 있으나, 외현적 자기애자보다 더 역기능적이어서 안녕감, 유능감, 적응성이 부족하고, 우울과 낮은 자존감, 대인관계의 어려움, 피하적인 특성들과 더 관련성이 있다.

이렇듯 내현적 자기애가 더 역기능적임에도 불구하고(Hendin & Cheek, 1997; Wink, 1991 a, b), 선행연구에서는 외현적 자기애만을 다루고 있다(이원희, 2001; 서수균, 권석만, 2002; 차타순, 2002). 그러나 내현적 자기애 개념이 임상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부적응적인 측면과도 관련이 깊고, 개인에게 주관적 불편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더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더 부적응적일 것으로 생각되는 내현적 자기애를 포함하여,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또한 Raskin(1980), Raskin과 Hall(1981) 그리고 Emmons(1984)는 병리적인 자기애는 자기애적 행동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고, 덜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날 때에는 이러한 행

동이 성격특질로서의 자기애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란 일반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과장되고 불안정한 자신에 대한 우호적인 전반적 평가라고 정의한다.

분노(anger), 적대감(hostility), 공격성(aggression)은 일부 학자들에 의해 AHA! 증후군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Spielberger, Johnson, Russell, Crane, Jacobs, & Worden, 1985). 분노감은 정서(affect)에 해당되고, 공격성은 행동(behavior)에, 적대감은 인지(cognition)에 해당된다고 해서 “ABC” 모델이라고 일컬어진다(Martin, Watson, & Wan, 2000).

적대감은 기존 연구들에서 자기애와 정적 상관관을 이룬다고 나타냈다(Fukunish, 1996). Hart와 Joubert(1996)는 자기애적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기대하고 선망하는 성향을 더 많이 갖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대처럼 반응하지 않으면 좌절하게 되고, 좌절을 더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며 상대방에게 적대감을 가지게 된다. 또한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적대감이 내현해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Patalano, 1997). 자기애적인 사람들은 아무런 나쁜 의도가 없는 충고나 스스로의 형편을 고려한 합리적인 거절에 대해서도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왜곡되게 받아들이고 분노와 적대감을 가지게 된다.

자기애적 사람은 자존감이 높긴 하지만 이는 주로 방어적인 자존감과 관련된 것으로, 자기애적 성향자 중 자기애에 대한 확신이 높은 사람이 오히려 분노와 적대감을 더 많이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Rodewalt & Morf, 1995).

Spielberger(1985) 등은 분노를 상태분노와 특성분노(분노경험수준)로 구분하였다. 상태분노는 분노 유발상황에서 나타나는 즉각적인 반응으로 일시적인 정서 상태이다. 특성분노는 얼마나 자주 분노를 일으키는가를 보이는 개인의 분노 경향으로 상태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개인의 경향이다. 즉, 특성분노가 높은 사람은 분노 유발상황에서 분노를 강하게 지각하는 성격특성을 가지고 있고, 특성분노가 낮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분노를 약하게 지각하는 성격특성을 가지고 있다(김소연, 1998).

특성분노 즉, 분노경험은 생리적인 반응과 더불어 느껴지는 정서적 상태인데 반해, 분노표현양식은 그 화가 나는 느낌에 대해 개인이 대응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 분노표현양식은 “행동”을 나타내는 공격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Spielberger(1985) 등에 따르면 분노표현양식은 분노표출(anger-out), 분노억압(anger-in), 분노조절(anger-control)로 구분된다. 분노표출은 화가 나면 자신의 분노를 환경 속의 타인이나 대상에게 나타내거나(Funkenstein, King, & Drolette, 1954), 신체적 행위나 비난, 욕설, 언어적 폭력이나 극단적인 모욕으로써 분노를 표현하는(Spielberger, Krasne, & Solomon, 1988) 것을 말한다. 분노억압은 화가 나 있지만 이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분노를 자기내부로 돌리거나 억압하는 것(Averill, 1982; Funkenstein et al., 1954) 혹은 분노 유발상황과 관련된 사고와 기억 혹은 분노 자체의 감정을 억제하거나 부정하는(Spielberger et al., 1988) 것을 말한다. 분노조절은 화가 난 상태를 자각하고 감독하면서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책략들을 구사하는 것으로, 냉정

을 유지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Spielberger, Reheiser, & Sydman, 1995).

분노표현양식 중 분노표출과 분노억압은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행동으로, 분노조절은 기능적인 분노표현 행동으로 분류된다(Biodeau, 1992; Gottlieb, 1999).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행동은 다양한 심리적 및 신체적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 분노표출이나 억압이 강한 사람은 심장혈관계 및 소화계 질환을 많이 보였으며, 분노억압이 강한 사람은 우울감과 절망감을 많이 보였고 자살 위험성도 높았다(김교현, 2000; 김교현, 전경구, 1997; Bridewell & Chang, 1996; Cautin, Overholser & Goetz, 2001; Zaitsoff, Geller, & Srikameswaran, 2002).

자기애와 분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McCann과 Biaggio(1989)는 자기애가 높을수록 분노표현이 증가함을 보였다. 자기애 성향자가 자기애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정보에 대해 극단적인 정서 반응, 특히 분노 반응을 보인다는 이론적 제안을 검증한 결과(Rhodewalt & Morf, 1998), 실패 피드백을 받았을 때 자기애 성향자는 분노와 불안을 더 많이 보고하였다. 자기애적 성향이 강할수록 분노감을 자주 경험하였고, 언어적 공격행동을 많이 보였다(Cann & Biaggio, 1989). Papps와 O'Carroll(1998)의 연구에서 자존감과 자기애적 성향이 모두 높은 집단이 분노감 경험과 표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자기애에 관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그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아직은 활발하지 못한 상태이다. 자기애와 여러 심리적인 변인들을 연관지은 연구가 다소 있지만 자기애 성향자의 하위유형을 구분하거나, 공격성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

면을 알아본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 유형에 따른 공격성(aggresiveness)을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인 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적대감, 분노경험 수준, 분노표현양식은 각각 공격성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인 면에 해당된다. 적대감과 분노는 기존의 몇몇 연구에서 자기애 성향자의 주된 정서적 특징으로 밝혀졌으나(McCann & Biaggio, 1989; Rodewalt & Morf, 1995; Fukunish, 1996; Hart & Joubert, 1996; Patalano, 1997; Papps & O'Carroll, 1998), 이것은 DSM-IV의 기준에 일치하는 외현적 자기애만을 다룬 결과로, 이론적으로나(Kohut, 1977) 경험적으로(Hendin & Cheek, 1997; Rathvon & Holmstrom, 1996; Wink, 1991b) 구분한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게다가 내현적 자기애는 낮은 자존감과 우울 등 여러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나(Hendin & Cheek, 1997), 임상적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를 포함하여, 기존 자기애 연구를 확장시키고 내현적 자기애에 대한 임상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이에 따라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의 공격성을 적대감, 분노경험수준 및 분노표현양식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 대상

피험자는 서울 C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강의를 듣는 학생들로, 설문지를 작성한 312명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4명의 자료를 제외

하고, 총 298명(남 113명, 여 18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피험자는 부적응적 자기애 척도 NPDS와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를 측정하는 CNS 145척도에 응답 한 후, 적대감, 분노경험 수준과 분노표현양식 척도에 응답하였다. 총 응답시간은 15-20분이었다.

연구 도구

자기애의 측정

기존 연구들은 주로 자기애적 성격 검사지(NPI)를 사용하여 외현적 자기애만을 다루었으나, 이 검사지는 외현적 자기애만을 측정한다는 해석 외에도 부적응적인 자기애보다 비교적 건강한 자기애를 측정한다는 해석이 많은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다(Carroll, Hoeningman, & Whitehead., 1996; Hickman, & Cheek, 1996; Jackson, Ervin, & Hodge, 1992; Raskin, & Novacek, 1989; Rhodewalt, & Morf, 1995). 그러나,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자기애는 건강한 성격특질로서의 자기애보다는 부적응적인 특질을 지니는 자기애이다. 자기애적 성격 검사지(이하 NPI)가 비교적 적응적이고 건강한 자기애적 성격성향을 측정하는데 비해(Carroll et al., 1996; Hickman, Watson, & Morris, 1996; Jackson, & Worden, 1992; Raskin et al., 1989; Rhodewalt et al., 1995), 자기애적 성격장애척도(NPDS)는 적응상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자기애 성격을 측정한다는 연구결과(한수정, 1999)를 고려할 때 부적응적인 자기애를 측정하는 도구로 자기애적 성격장애척도(NPDS)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NPI 대신 국내에서 황순택(1995)이 전형성 평정 방식으로 개발한 자기애적 성격장애 척도(이하 NPDS)를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NPDS와 함께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개발한 내현적 자기에 척도(CNS)를 사용하였다. 내현적 자기에척도(이하 CNS)의 요인분석결과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의 공통요인을 측정하는 2요인과 내현적 자기에만의 고유 요인을 측정하는 3요인으로 나타났다. 박세란(2004)이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를 적절하게 측정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형의 공통요인(CNS 23)과 내현적 자기에만의 고유요인(CNS 145)을 NPDS와 NPI와 상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NPDS는 외현적 자기에를 측정한다고 여겨진 NPI, 내현적 자기에를 측정한다고 알려진 CNS, 그리고 CNS 중 자기에의 공통요인에 해당하는 CNS 23 모두와 높은 상관을 보여 두 자기에의 특성을 모두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현적 자기에를 측정하는 도구인 NPI와 내현적 자기에만의 고유요인인 CNS 145는 유의한 부적상관($r = -.232, p < .001$)을 보여 두 척도가 서로 상반되는 자기에 측면을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CNS 145는 내현적 자기에의 특성만을 포괄하는 측정치로, CNS 145척도의 점수가 높으면 내현적 자기에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CNS 145는 외현적 자기에를 측정하는 도구인 NPI와 역상관을 보여, CNS 145 점수가 낮으면 외현적 자기에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적인 자기에성향이 높은 집단과 자기에성향이 낮은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NPDS를 사용하고, 내현적 자기에와 외현적 자기에를 구분하기 위해 CNS 145를 사용하였다.

자기에 성격장애 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NPDS)

이 검사는 황순택(1995)이 DSM-III-R의 진단준거를 보완하여 성격장애를 측정하는 자기보고형 검사로 개발한 척도 중 자기에적 성격장애에 대한 것이다. 이 척도는 적응상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자기에 성격을 측정한다는 연구결과(한수정, 1999)를 고려할 때 부적응적인 자기에를 측정하는 도구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척도에는 다른 성격장애와 공유하고 있는 특성도 자기에적 성격장애 진단준거에 포함시킨 공유 척도와, 다른 성격장애와의 공유 특성을 모두 제외하고 자기에적 성격장애에만 해당되는 특성으로 구성된 비공유척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변별진단을 정교하게 하는 것보다 자기에적 성격의 특성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공유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에 4점 척도로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평가를 위해 한수정이 수정한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황순택(1995)이 보고한 Cronbach α 는 0.68이었으며, 한수정(1999)의 7점 척도 방식에서는 .99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는 .86이었다.

내현적 자기에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Ahktar와 Thompson(1982)의 '자기에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참고하여 개발한 척도이다. 총 45문항으로,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에 성격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은 요인분석을 통해 5개 하위척도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내현적 자기에와 외현적 자기에의 공통 요인(2요인)과 내현적 자기에만의 고유요인(3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척도 개발자들이 보고한

*Cronbach a*는 .91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박세란, 2004)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를 분류한다고 제시한 내현적 자기애 고유요인(CNS 145)만을 사용하였으며, 총 27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 고유요인(CNS 145)의 *Cronbach a*는 .90이었다

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이며, *Cronbach a*는 특성분노는 .82였으며(전경구 등, 1997), 분노표출, 분노억압, 분노조절은 각각 .73, .78, .79였다. 본 연구의 *Cronbach a*는 특성분노 .81, 분노조절 .83, 분노표출 .76, 분노억압 .78이었다.

공격성 질문지(Aggression Questionnaire 한국판; AQ-K)

Buss와 Perry(1992)가 개발한 것을 서수균과 권석만(2002)이 번안한 것으로, 신체적 공격행동, 언어적 공격행동, 분노감, 적대감으로 구성된 4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적대감 척도만 사용하였으며, 5점 척도이다. 척도 개발자들이 보고한 *Cronbach a*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 a*는 .87이었다.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STAXI-K)

Spielberger, Krasner 및 Solomon(1988)의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를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1997)가 한국판으로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TAXI-K에서 상태분노를 제외하고 특성분노(10문항)와 분노표현의 세 가지 양상인 분노억압(Anger-In), 분노표출(Anger-Out), 분노조절(Anger-Control) 하위척

결 과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피험자는 부적응적 자기애를 측정하는 NPDS척도와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를 측정하는 CNS 145척도의 점수를 기준으로 세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내현적 자기애성향집단은 NPDS에서 상위 33%이상(69점)이면서, CNS 145에서 상위 50%이상(69점)인 경우, 외현적 자기애성향집단은 NPDS에서 상위 33%이상(69점)이면서 CNS 145에서 하위 50%미만(69점)인 경우, 자기애성향이 낮은 집단은 NPDS에서 하위 33%이하(56점)인 경우로 구분하였다.

집단의 구성이 적절한지 살펴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한 결과, 외현적 자기애집단과 내현적 자기애집단간의 NPDS 점수차는 유의하지 않았고, CNS 145점수는 내현적 자기애집단이

표 1. 세 집단의 사례수와 NPDS와 CNS145에서의 평균과 표준편차

	사례수	NPDS		CNS 145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내현적 자기애집단	68	77.25	8.68	85.90	11.18
외현적 자기애집단	34	75.50	6.45	60.32	8.07
자기애 성향이 낮은 집단	101	48.11	5.84	61.99	13.66
Total	203	62.46	15.94	69.72	16.05

더 높았으며, 외현적 자기애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CNS 145척도의 점수 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자기애집단과 통제집단은 NPDS에 의해, 외현적 자기애집단과 내현적 자기애집단의 구분은 CNS 145에 의해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CNS 145 척도의 점수는 내현적 자기애집단이 가장 높았고, 외현적 자기애집단과 통제집단의 점수 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 결과, 내현적 자기애성향자집단 68명(남 30명, 여 38명), 외현적 자기애성향집단 34명(남 11명, 여 23명), 자기애성향이 낮은 집단 101명(남 39명, 여 62명)이 선발되었다. 각 집단의 나이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20.37(2.21)세, 20.74(1.93)세, 21.32(2.46)세였다(표 1).

세 집단 간 적대감 비교

내현적 자기애성향집단, 외현적 자기애성향집단과 자기애성향이 낮은 집단의 적대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적대감에 대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와 같이, 내현적 자기애성향집단이 외현적 자기애성향집단과 자기애성향이 낮은 집단보다 적대감이 더 높았다 $F(2, 200) = 56.61(p < .001)$.

세 집단 간 분노경험수준 비교

내현적 자기애성향집단, 외현적 자기애성향집단과 자기애성향이 낮은 집단의 분노경험수준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표 2. 세 집단 간 적대감 비교

	내현적자기애 성향집단 (n=68)	외현적자기애 성향집단 (n=34)	자기애성향이 낮은집단 (n=101)	F	사후 비교
적대감	22.03 (5.10)	16.71 (3.85)	14.98 (3.74)	56.61***	1/2, 3

*** p < .001

(/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집단을 구분. 1= 내현적 자기애성향집단, 2= 외현적 자기애성향집단, 3= 자기애성향이 낮은 집단)

표 3. 세 집단의 분노경험수준 비교

	내현적자기애 성향집단 (n=68)	외현적자기애 성향집단 (n=34)	자기애성향이 낮은집단 (n=101)	F	사후 비교
분노경험 수준	23.12 (5.14)	22.47 (3.93)	17.27 (3.66)	44.78***	1, 2/ 3

*** p < .001

(/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집단을 구분. 1= 내현적 자기애성향집단, 2= 외현적 자기애성향집단, 3= 자기애성향이 낮은 집단)

실시하였다. 표 3과 같이, 내현적 자기애성향 집단과 외현적 자기애성향집단이 자기애성향이 낮은 집단보다 분노경험수준이 더 높았다, $F(2, 200) = 44.78(p < .001)$.

세 집단 간 분노표현양식 비교

내현적 자기애성향집단, 외현적 자기애성향 집단과 자기애성향이 낮은 집단의 분노조절, 분노표출과 분노억압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집단의 분노조절

외현적 자기애성향집단과 자기애성향이 낮은 집단 간에 분노조절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2, 200) = 3.35(p < .05)$.

세 집단의 분노표출

내현적 자기애성향집단과 외현적 자기애성향집단이 자기애성향이 낮은 집단보다 분노표출이 더 높았다, $F(2, 200) = 17.03(p < .001)$.

세 집단의 분노억압

내현적 자기애집단, 외현적 자기애집단, 자기애성향이 낮은 집단 순으로 분노억압이 높았다, $F(2, 200) = 40.42(p < .00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 집단을 내현적 자기애성향집단과 외현적 자기애성향집단으로 구분하고, 자기애성향이 낮은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적대감, 분노경험수준과 분노표현양식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첫째, 내현적 자기애성향집단이 외현적 자기애성향집단과 자기애성향이 낮은 집단보다 적대감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원인-결과적 상관이라고 결론지을 수는 없지만, 더 자기애적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고 이를 기대하고 열망하는 선망을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대처럼 반응하지 않으면 좌절하게 되고 그

표 4. 세 집단의 분노표현양식 비교

	내현적 자기애 성향집단 (n=68)	외현적 자기애 성향집단 (n=34)	자기애 성향이 낮은집단 (n=101)	F	사후 비교
분노 조절	21.41 (4.15)	19.79 (3.76)	21.89 (4.13)	3.35**	2/3
분노 표출	16.71 (4.24)	16.71 (3.75)	13.76 (3.02)	17.03***	1, 2/3
분노 억압	20.99 (3.96)	17.74 (3.02)	15.85 (3.61)	40.42***	1/2/3

*** $p < .001$ ** $p < .05$

(/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집단을 구분. 1= 내현적 자기애성향집단, 2= 외현적 자기애성향집단, 3= 자기애성향이 낮은 집단)

들에게 적대감이라는 감정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Hart & Joubert, 1996). 특히, 외현적 자기애성향자의 경우 타인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방어적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대처럼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고 좌절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는 타인에게 예민하고 불안하며 소심하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도 외현적 자기애성향자에 비해 더 크게 좌절감을 느끼고, 따라서 적대감도 더 많이 느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들이 타인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며 표면적으로 공감을 보이려고 애쓰는다는 보고(Cooper, Ronningstam, 2002)로 미루어 볼 때, 미묘한 죄책감이 자신을 더 적대적이라고 자책하게 만드는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다.

둘째,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성향집단과 자기애성향이 낮은 집단 간에 분노경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외현적 자기애성향자가 자기애성향이 낮은 사람보다 분노경험수준이 높다는 것은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으나, 내현적 자기애성향자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그러나, 내현적 자기애성향자와 외현적 자기애성향자는 그 현상학적 모습만 다를 뿐, 자기애의 원인과 기제는 같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도 그들의 이상화가 현실적 상황에서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분노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도 분노경험수준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기존중감의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박세란(2004)은 내현적 자

기애성향집단, 외현적 자기애성향집단, 자기애성향이 낮은 집단 순으로 실제적 자기-이상적 자기간 자기불일치감을 보고하였다. 즉, 내현적 자기애성향자와 외현적 자기애성향자는 실제적 자기-이상적 자기의 불일치감이 크므로, 이상적 자기라고 믿었던 자기의 거짓된 자아가 위협받거나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위협감에 때문에 분노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차타순, 2001). 즉, 자기애 성향이 높은 개인은 높은 수준의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추구하는데, 현실은 그에 못 미치게 되고 이상적 자기와 실제적 자기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으로 인해 수치심, 분노,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이원희, 2001).

또한 이상적이고 전지전능한 자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완벽함, 권력과 전지전능함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Kohut, 1971, 1977). 따라서 내현적/외현적 자기애성향자는 자기애성향이 낮은 사람보다 현실적인 상황에서 자기상이 충족되지 않아 분노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분노표현양식 중 기능적인 분노표현양식인 분노조절은 외현적 자기애성향집단과 자기애성향이 낮은 집단간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고, 내현적 자기애성향집단과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우선, 분노경험수준이 높은 외현적 자기애성향자가 분노를 더 많이, 더 깊게 경험하고 그에 따라 분노에 잘 대처하지 못하여 분노를 적응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내현적 자기애성향자와 자기애성향이 낮은 사람 간 분노 조절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내현적 자기애성향자의 분노억압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즉, 미약하게나마 분

분노조절이 분노억압과 정적상관을 이룬다는(김교헌, 전경구, 1997; 서지영, 1996) 연구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분노억압과 분노조절 간의 정적상관뿐만 아니라, 분노표출과 분노조절 간 부적상관도 나타나 Spielberg가 초기에 생각했던 것처럼, ‘분노표출’의 반대 극이 ‘분노억압’이 아니라 ‘분노조절’일 가능성이 있다. Spielberg(1997)의 지적처럼, 현 단계에서 분노조절을 분노표출이나 분노억압과 독립적인 차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분노조절, 분노표출, 분노억압 간 상관을 살펴본 결과, 기존 연구의 결과처럼 분노억압과 분노조절 간 정적상관($r = .13$)이 나타났으며, 분노표출과 분노조절 간 부적상관($r = -.43$)이 나타났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성향집단이 분노조절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분노억압과 분노조절의 척도 간 상관에 의한 것일 수 있다.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성향자 모두 자기애성향이 낮은 집단보다 분노표출을 많이 하였다.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는 분노표출 뿐만 아니라 분노억압도 많이 하였으며, 외현적 자기애성향자는 분노표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현적 자기애성향자는 분노를 느낄 때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고,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는 분노를 느낄 때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지만, 분노를 억압하는 경우도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손상된 자기표상을 복구하기 위해 두 자기애 유형이 취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Cooper(2000)에 따르면, 외현적 자기애는 경탄을 요구하고 웅대성을 전시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방식으로 취약한 자기

개념을 보호하려는 역동을 나타낸다.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가능한 비판과 비난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비난의 단서가 없는지 타인의 의견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단언을 피하는 방식으로 취약한 자기개념을 보호한다. 따라서,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성향자가 똑같은 수준의 분노를 경험하더라도, 외현적 자기애성향자는 자기중심적인 방식과 웅대한 자기 전시성으로 인해 타인을 고려하지 않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다. 반면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는 타인의 눈치를 보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비판과 비난에 예민하기 때문에 분노를 느끼더라도 억압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내현적 자기애성향자가 분노표출과 분노억압을 모두 사용하는 것은 타인에게 분노감이나 적대감을 느끼지만 이를 기능적으로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며, 상대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지나치게 억제하고 있다가 부적절하게 충동적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서수균, 권석만, 2002).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외현적 자기애성향자는 분노경험수준이 높고 분노를 느낄 때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는 외현적 자기애성향자보다 적대감이 높고, 분노를 느낄 때 분노억압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내현적 자기애성향자가 외현적 자기애성향자에 비해 더 부적응적이며, 억압되었던 분노가 어느 순간 폭발하면 보다 공격적이고 극단적이 될 소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의 방향과 관련된 몇 가지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자기애성격장애를 지닌 임상집단에 까지 연구 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는지를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에 측정을 위하여, 자기에성격장애척도(이하 NPDS)와 내현적 자기에척도(이하 CNS)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내현적 자기에를 측정하는 도구인 CNS는 2002년도에 개발되어 기존 연구에서 많이 다루지지 않던 도구이다. 선행 자기에 연구에서는 자기에적 성격 검사지(이하 NPI)를 사용하였고, 내현적 자기에가 보고되면서 내현적 자기에를 측정하는 도구로 NPDS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NPDS가 외현적 자기에를 측정하는 NPI와 정적 상관을 보여 내현적 자기에를 측정하는 도구로 적절하지 않음이 밝혀졌다(한수정, 1999; 박세란, 2004). 2002년 내현적 자기에를 측정하는 CNS가 개발된 이후, 최근 연구에서는 CNS를 사용하였으나(박세란, 2004), CNS가 내현적 자기에를 정확히 측정하고 있는가는 후속연구에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기에는 분노감정 표현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지만 자기에적 성향자는 스스로 화가 났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연구(McCann & Biaggio, 1989) 결과를 고려하여, 부정적인 정서들을 신뢰롭게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후속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검사보다 실험연구를 진행해 보는 것도 고려된다. 하지만, 공격성과 분노 같은 부정정서를 유발하는 실험의 경우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실험 세팅에 대한 많은 고려가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자기에와 분노의 관계를 중재하는 매개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이유로 분노를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은 자신의 분노를 내면화시키는데, 이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울증상이다. 따

라서 이러한 우울은 알고 보면 분노의 다른 모습일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자기에성향자들의 임상적 증상으로 우울과 불안을 같이 측정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몇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에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자기에를 다루어 자기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둘째, 내현적 자기에성향자가 외현적 자기에성향자보다 더 부적응적일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내현적 자기에에 대한 임상적 연구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셋째, 자기에 하위유형에 따른 분노표현양식을 통하여 내현적/ 외현적 자기에성향자의 분노표현양식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분노를 억압하는 내현적 자기에성향자의 경우, 분노의 감정을 적절히 방출시키지 않으면 물이 물탱크에 저장되는 것처럼 저장이 되므로 폭발의 위험이 있다(김계현, 1993). 따라서 보복 받을 가능성이 적은 약한 대상을 분풀이의 대상으로 택하거나 아니면 분노경험과 무관한 상황에서 과장되게 분노감을 나타낼 수도 있으므로(Baumeister, Smart, & Boden, 1996), 분노의 문제가 대인관계 및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에 하위유형에 따라 분노감을 다루는 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넷째, 자기에 유형에 따른 공격성(aggressiveness)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을 알아봄으로써, 자기에 유형에 따라 어느 차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강선희, 정남운(2002).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0-990.
- 김교현, 전경구(1997). 분노, 적대감 및 스트레스가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79-95.
- 김교현 (2000). 분노 억제와 고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 181-192.
- 김계현 (1993). 분노조절을 위한 프로그램. 청소년 범죄연구, 11.
- 김소연 (1998). 특성분노와 분노표현이 심장혈관 반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세란 (2004).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귀인양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수균, 권석만 (2002). 자존감 및 자기애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809-826.
- 서수균, 권석만 (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487-500.
- 서지영 (1997). 특성분노의 반응양식도가 이에 영향을 주는 제 변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원희 (2001). 자기애와 완벽주의, 적대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60-78.
-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 (1998). Korean adaptation of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ATAXI-K):The case of college students.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3, 18-32
- 차타순 (2002).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심리적 특성과 비행성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수정 (1998).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외현적·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순택 (1995). 전형성 평정에 의한 성격장애 진단 준거 개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khtar, S., & Thomson,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1), 12-2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3rd ed.)*. Washington, DC: Author.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3rd ed. revised)*. Washington, DC: Author.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rd ed.)*. Washington, DC: Author.
- Averill, J. R. (1982). *Anger and aggression: An essay on emotion*. New York; pringer-Verlag.
- Averill, J. R. (1983). Studies on anger and aggression: Implications for theories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38, 1145-1160.
- Baumeister, R. F., Smart, L., & Boden, J. M. (1996). Relation of threatened egotism to violence and aggression: the dark side of high self-esteem, W. B., & Chang, E. C. (1996). Distinguishing between anxiety, depression, and hostility: relations to anger-in, anger-out, and anger-contro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22(4), 587-590.
- Berkowitz, L. (1993). *Aggressuin: Its cause,*

- consequences, and control*(pp.11). McGraw-Hill, Inc.
- Bilodeau, L. (1992). *The Anger Workbook*. Hazelden.
- Cann, J., & Biaggio, M. K. (1989). Narcissistic personality features and self-reported anger. *Psychological Report*, 64, 55-58.
- Carroll, L., Hoenigmann-Stovall, N., & Whitehead III., G. I. (1996). Interpersonal consequences of narcissism. *Psychological Reports*, 79, 1267-1272.
- Cautin, R. L., Overholser, J. C., & Goetz, P. (2001). Assessment of mode of anger expression in adolescent psychiatric inpatients. *Adolescence*, 36, 163-170.
- Cooper, A. M. (2000). Further development in the clinical diagnosi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F. Elsa & E. Ronningstam(Eds.), *Disorder of narcissism: Diagnostic, clin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pp.53-74), London: Jason Aronson Inc.
- Cooper, A. M. & Ronningstam, E. (2002).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A. Tasman, & M. B. Roba(Eds.) *American psychiatric press review of psychiatry*, 11(pp. 80-97),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Fukunishi, L., Nakagawa, T., & Nakamura, H., Li, K., Hua, Z., & Kratz, T. S. (1996). Relationship between Type A behavior, narcissism, and mental closeness for college students in Japa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 *Psychological Reports*, 78, 939-944.
- Funkenstein, D. H., King, S. H., & Drolette, M. E. (1954). The direction of anger during a laboratory stress-inducing situation. *Psychosomatic Medicine*, 16, 404-413.
- Gottlieb, M. M. (1999). *The angry self: A comprehensive approach to anger management*. Phoenix, Arizona: Zeig, Tucker & Co. Press.
- Hart, P. L., & Joubert, C. E. (1996). Narcissism and hostility. *Psychological Reports*, 79, 161-162.
- Hazaleus, S. L., & Deffenbacher, J. L. (1986). Relaxation and cognitive treatments of ange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222-226
- Hendin, H. M., & Cheek, J. M. (1997). Assessing hypersensitive narcissism: A reexamination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4), 521-525.
- Hickman, S. E., Waston, P. J., & Morris, R. J. (1996). Optimism, pessimism, and complexity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4), 521-525.
- Jackson, L. A., Ervin, K. S., & Hodge, C. N. (1992). Narcissism and body imag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4, 177-187.
- Jacobs, G. A., & Worden, T. J. (1985).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n anger expression scale. In. M. A. Chesney & R. H. Rosenman(Eds.) *Anger and Hostility in cardiovascular and behavioral disorder*(pp.5-30). Wachington, D.C: Hemisphere Publishing.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asch, C. L. (1976). *The culture of narcissism*. New

- York: Norton.
- Martin, R., Watson, D., & Wan, C. K. (2000). A three-factor model of trait anger: dimensions of affect, behavior, and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68, 869-897.
- McCann, J. T., & Biaggio, M. K. (1989). Narcissistic personality features and self-reported anger. *Psychological Reports*, 64, 55-58.
- Morf, C. C., & Rhodewalt, F. (2001). Narcissism and self-evaluation maintenance: Explorations in object rel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 676-688.
- Papps, B. P., & O'Carroll, R. E. (1998). Extremes of self-esteem and narcissism and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and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24, 421-438.
- Patalano, F. (1997). Narcissism and hostility. *Psychological Reports*, 62, 879-882.
- Patton, M. J., Connor, G. E., & Scott, K. J. (1982). Kohut's psychology of the self: Theory and measures of counseling outcom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3), 268-282.
- Raskin, R. & Novacek, J. (1989). An MMPI description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3(1), 66-80.
- Rathvon, N., & Holmstrom, R. W. (1996). An MMPI-2 portrait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1), 1-19.
- Rhodewalt, F., & Morf, C. C. (1995). Self and interpersonal correlate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 review and new finding.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9, 1-23,
- Rhodewalt, F., & Morf, C. C. (1998). On Self-Aggrandizement and Anger: A Temporal Analysis of Narcissism and Affective Reactions to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3), 672-685.
- Spielberger, C. D., Jacobs, G. A., Russell, S., & Crane, R. S. (1983). Assessment of anger: The State-Trait Anger Scale.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 2, N. J; LEA, 159-187.
- Spielberger, C. D., Johnson, E. H., Russell, S., Crane, R. S., Jacobs, G. A., & Worden, T. J. (1985).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n anger expression scale. In M. A. Chesney & R. H. Rosenmen (Eds) *Anger and hostility in cardiovascular and behavioral disorder*(pp. 5-30). New York: Hemispher.
-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m,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Eds.). *Individual differences, stress, and health psychology*. N.Y.: Springer Verlag.
- Spielberger, C. D., Reheiser, E. C., & Sydeman, S. J. (1995). Measuring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H. Kassinover(Ed). *Anger Disorder: Definition, Diagnosis, and treatment*(pp.1-26). Tatlor & Francis.
- Watson, P. J., Grisham, S. O., Trotter, M. V., & Biderman, M. D. (1984). Narcissism and empathy: validity evidence for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3), 301-305.

- Watson, P. J., Taylor, D., & Morris, R. J. (1987). Narcissism, sex roles, and self-functioning. *Sex Roles, 16*(7-8), 335-350.
- Wink, P. (1991a). Self- and object-relatedness in adult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59, 4*, 769-791.
- Wink, P. (1991b).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4), 590-597.
- Wink, P., & Gough, H. G. (1990). New narcissism scales for the 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 and MMPI.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3&4), 446-462.
- Zaitsoff, S. L., Geller, J. & Srikaneswaran, S. (2002). Silencing the self and suppressed anger: relationship to eating disorder symptoms in adolescent females. *European Eating Disorders Review, 10*(1), 51-60.
- 원 고 접 수 일 : 2008. 11. 29.
1차 수정원고접수일 : 2008. 1. 14.
2차 수정원고접수일 : 2008. 5. 22.
게 재 결 정 일 : 2008. 9. 26.

Hostility, Anger Experience and Anger Expression in Overt and Covert Narcissists

Baek, Seung Hye

Hyun, Myung Ho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 Ang University

In this study, narcissistic individuals were divided into two subtypes overt and covert. The levels of hostility, anger experience, and anger expression in each subtype were examined. For this purpose,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Covert Narcissism Scale, Korean Version of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and Korean Version of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were administered to 298 undergraduates. Th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covert narcissists, overt narcissists and students with low levels of narcissism) based on their scores on the NPDS and CNS 145. Differences in hostility, anger experience and anger expression were compared using ANOVA. The covert narcissists experienced more hostility than the overt narcissists, and students with low levels of narcissism. The covert and overt narcissists experienced more anger than the students with low levels of narcissism. Furthermor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nger-control between the overt narcissists and students with low levels of narcissism. The overt narcissists experienced more anger-out, and covert narcissists experienced more anger-in. The results indicated that covert narcissists, who have a tendency to suppress their anger, are more maladaptive than overt narcissists in many respects. Moreover, this study proposes that different anger management techniques should be used for individuals with covert and overt narcissism.

Key words : narcissism, hostility, anger, anger experience, anger expression, aggression